

# 日本 本國寺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A Study on Early Typography of Honkokuzi Edition in Japan

曹 炯 鎮 (Cho, Hyung-Jin)\*\*

## ◁ 목 차 ▷

- |                   |                   |
|-------------------|-------------------|
| 1. 緒 論            | 5. 本國寺版 古活字의 印出技術 |
| 2. 本國寺版의 概要       | 6. 本國寺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
| 3. 本國寺版 古活字의 製作技術 | 7. 結 論            |
| 4. 本國寺版 古活字의 組版技術 | <참고문헌>            |

## <초 록>

(1) 本國寺版 古活字本이란 京都 소재 本國寺에서 日保 등이 1595년부터 1626년까지 32년간, 木活字로 인쇄한 6종의 판본을 지칭한다.

(2) 活字의 재질은 목재이다. 製作技術 수준은 필서체의 필의를 표현하고 있으면서, 세련된 수준이다. 기술 수준은 상하급.

(3) 組版技術은 字跡의 行列이 대체로 정연하다. 빼놓여진 문자는 드물고, 墨色 濃淡은 균일하다. 광곽이 있는 경우는 꼭지점이 거의 밀착해 있다. 교정도 충실한 편이다. 기술 수준은 상하급.

(4) 印出技術은 목색이 판본에 따라 편차가 있다. 기술 수준은 간신히 상하급.

(5) 印刷技術 수준은 상하급을 유지하고 있다.

要語: 日本 本國寺版, 高 활자, 활자제작기술, 조판기술, 인쇄기술, 인쇄기술

## <ABSTRACT>

(1) The Honkokuzi early type edition refers to 6 editions printed in a wooden type by Niho and others at Honkokuzi temple in Kyoto for 32 years between 1595 and 1626.

(2) The material of the type was wood. The type-making technique sufficiently shows script writing style and was highly refined. Its technical quality is upper-lower grade.

(3) The typesetting technique shows evenly aligned lines of character trace vertically and horizontally. There are few skewed characters, and the saturation intensity of ink color is consistent. In case of edition frame, the vertex is closely adhered. The corrections are also precise. The technical quality is upper-lower grade.

(4) The brushing technique shows variance in ink color across editions. The technical quality is barely upper-lower grade.

(5) The quality of printing technique maintains upper-lower grade.

Key words: Honkokuzi edition, early type, type-making technique, typesetting technique, brushing technique, typography

\* 본 연구는 2019학년도 강남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강남대학교 KNU참인재대학 교양학부 교수(chohj@kangnam.ac.kr)

투고일: 2019년 7월 10일 최초심사일: 2019년 8월 31일 게재확정일: 2019년 9월 3일

서지학연구, 제79집, 5-22, 2019. <https://doi.org/10.17258/jib.2019..79.5>

## 1. 緒論

일본의 고허자 인쇄는 1590년 서양과 1593년 조선으로부터 그 기술이 전래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慶安년간(1648-1651)까지 62년간 京都 지방을 중심으로 서적 간행에 이용되었다.

일본의 고허자 인쇄는 크게 爲政者 및 정부기관에 의한 인쇄, 京都와 地方의 사찰에 의한 인쇄, 서사 및 개인에 의한 인쇄로 3대별할 수 있다. 그 중, 고허자판을 가장 널리 간행한 주체는 사찰이다. 사찰은 불전 간행 경험이 풍부하고, 이를 지원하는 학승과 장인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佛典은 일정한 수요도 있었고, 대부분이 漢字로 되어 있어서 활자 인쇄에 적합하였다. 사찰판 고허자본이 발달하게 된 배경과 이유다.

본 연구는 京都 소재 本國寺에서 日保가 주축이 되어 활자 인쇄 기술 전래 직후에 간행하기 시작한 本國寺版 고허자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本國寺판은 일본 고허자판 인쇄 발달사 상, 사찰판의 비조로 꼽을 수 있는 현존 最古의 판본을 간행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판본의 감정은 문헌 자료나 일본 소장처의 목록에 기록된 것을 따랐다.

연구방법은 관련 문헌을 통한 문헌연구법과 고허자본 실물을 직접 분석하는 직관법 등을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本國寺판의 개요·활자의 제작기술·조판(인판의 제작)기술·인출기술, 그리고 이를 종합한 인쇄기술의 수준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인쇄기술 부분을 특히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이유는 일본에서도 문화사적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기술사적 연구는 미미하기 때문이다.

인쇄기술 수준의 분석을 위한 표준은 필자가 이미 발표한 평가 요소를 이용하였다.<sup>1)</sup> 인쇄기술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판본을 각각 분석한 것을 모아서 本國寺판 전체를 집단으로 기술하기 때문에, 평가 표준에 나타난 평가 요소의 정도와 수량을 일일이 수치로 표시하지 못하고, 전체적인 정황을 기술하였다.

판본학 연구에서 서영은 필수적이다. 다만 귀중본인 까닭에 복사에 제한이 있고,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본문에서 서술하고 있는 구체적인 특징을 부분적으로밖에 제시하지 못함이 아쉽다.

## 2. 本國寺版의 概要<sup>2)</sup>

### 2.1 本國寺版의 定義

#### 2.1.1 本國寺版의 刊行 地域

本國寺版이란 京都 지역에 소재한 本國寺에서 간행한 서적을 지칭한다. 京都의 사원 중에서

1) 曹炯鎮, “古活字 印刷技術의 評價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25(2003. 6), 369-406.

2) 川瀬一馬, 『増補古活字版之研究』(Tokyo: The Antiquarian Booksellers Association of Japan, 1967), 154-155, 278-279; 長澤規矩也, 『圖解和漢印刷史: 解説篇』(東京: 汲古書院, 1976), 43; 井上宗雄 等編, 『日本古典籍書誌學辭典』(東京: 岩波書店, 1999), 528-529. 문화사적인 내용은 이들 자료를 주로 참고하였다.

가장 먼저 고활자판을 간행한 곳은 日蓮宗에 속한 本國寺이다. 本國寺가 이렇게 일찍 활자 인쇄를 시작한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宗派 면에서, 활자 인쇄 기술 전래의 통로였던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략한 장수 加藤清正 등 많은 인물이 日蓮宗의 신자였던 점과 모종의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本國寺가 고활자본 서적을 간행한 또 다른 이유는 『佛祖歷代通載』에 수록된 刊記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즉 本國寺는 그 안에 모종의 조직적인 修學 기관이 설립되어 있었다. 그 활동의 하나로서, 修學 기관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간행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 4명의 승려가 협력하여 간행하였다(“2.1.3 本國寺版의 刊行 時期” 참조). 이는 慶長년간 후반기에 이르러 要法寺 등 동일한 종파의 간행에 자극받아서 재개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2.1.2 本國寺版의 刊行 主體

本國寺판 활자본 간행을 주도한 인물은 一輪房 日保이다. 日保의 행적에 관하여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다만 本國寺판 고활자본 『法華玄義序』의 간기에 의하여, 本國寺의 常住로서 本國寺의 초기 고활자본 간행을 주도한 인물임은 확실하다.

### 2.1.3 本國寺版의 刊行 時期

本國寺판 고활자 인쇄가 시작된 것은 현존 고활자본인 『天台四教儀集解』의 간기 1행 “文祿四<sup>ㄷ</sup> 未 曆十一月二十四日”에 의하면 文祿 4년(1595) 11월이다. 이 판본이 바로 일본 현존 最古의 고활자본이다. 이로부터 1개월 후에는 『法華玄義序』를 一輪房 日保의 발원에 의하여 간행하였다. 절첩본인 이에는 제16엽 제4행과 제17엽 제1, 3행에 다음과 같은 간기가 있다.

奉寄進 法華玄義序 百部

文祿四<sup>ㄷ</sup> 未 曆極月<sup>3)</sup>二十四日

大光山本國寺常住 願主一輪房日保

이후 慶長 17년(1612)에 『佛祖歷代通載』를 간행하였다. 권말인 권22 제72엽(말엽) 하엽 제5~10행에 다음과 같은 간기가 있다.

3) 極月은 선달.

本國寺學校 玉潤日銳補爛脫耳

十住 從 實乘 進  
法壽 珠 金林 慧

四僧集會異體同心鏤梓刊板<sup>4)</sup>流行天下  
慶長十七 壬子 極月十九日

本國寺판 고향자의 마지막 판본은 寬永 3년(1626)에 간행한 『天台法華疏義續』·『摩訶止觀私記』·『法華玄義私記』 등 3종이 있다. 『天台法華疏義續』에는 권6 권말제 뒤에 1행 건너서 다음과 같은 간어와 간기가 있다.

右此抄記者, 一家習學之士, 雖勵書寫之功,  
展轉之謬, 歎亦有餘矣, 因茲, 今聚集數多之  
舊本, 粗校檢之而輒鈐乎版焉, 庶幾留未來  
永劫, 俾道廣遠也, 猶恐魚魯訛錯, 章句齟齬,  
文字添脫, 敬請後哲刪削決定而已.

于時寬永三<sup>丙寅</sup>曆南呂<sup>5)</sup>中旬  
洛陽於本國寺 開之

『摩訶止觀私記』에는 “寬永三曆<sup>丙寅</sup>九月 日, 於洛陽本國寺內 開之”의 간기 2행이 있다. 『法華玄義私記』에도 “寬永三<sup>丙寅</sup>曆九月 日 洛陽於本國寺開之”의 간기 1행이 있다.

이는 本國寺판 고향자본 중에서 간년이 명기된 마지막 판본이다. 이로써 本國寺판 고향자로 서적 인쇄가 이루어진 기간은 32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서적 간행이 꾸준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중도에 10여 년씩의 기간을 두면서 3회에 걸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1.4 本國寺版의 刊行 手段

本國寺판의 여러 판본을 직관하면, 예외 없이 모두 목활자를 이용하였다. 그런데 각 판본에 나타난 자적을 비교하면 慶長 17년의 『佛祖歷代通載』는 다른 판본과 서체가 완전히 다르고, 필획의 굵기는 세필이어서 한눈에 다름을 알 수 있다. 文祿 4년과 寬永 3년의 판본은 31년의 시차와 사용에 따른 만환 정도를 감안하여도 문자의 크기·서체·필법·목색 등에서 나오는 분위기가 다른 점으로 미루어 동일한 활자로 간행한 판본이 아니다. 이는 아마도 17년과 14년의 세월을 건너서 간행할 때 각각 다시 제작하였거나 임차 등 제3의 방법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추측된다.

4) 활자본의 간행임에도 “鏤梓刊板”이라 표현하고 있다. 이에서 ‘목판의 조각’이 아닌 ‘간행’의 의미로 인식하고 있는 당시의 관념을 엿볼 수 있다.  
5) 南呂는 음력 8월.

비교를 위하여 3종의 판본에서 동일한 문자를 제시하면 <사진 1>과 같다. 문자의 크기는 최대한 같은 비율로 하였다. 동일한 문자가 복수일 경우 가능한 한 편차가 적은 유사한 자적을 추출하였다. 후인의 가필 흔적과 蟲損 현상은 감안하여야 한다. 제시한 문자의 위치는 서명 권차 장차 행-자수가 차례로 『法華玄義序』 제2엽 1-7·제3엽 5-13·제4엽 2-12·제1엽 3-2·제3엽 1-7·제5엽 3-1·제1엽 4-3·제4엽 1-16·4-1·5-4·4-16 ; 『佛祖歷代通載』 권1 제1엽 상엽 7-14·권3 제1엽 상엽 1-7·권1 제1엽 상엽 5-13·8-7·8-6·6-1·권3 제1엽 상엽 5-19·권1 제1엽 상엽 5-2·권3 제1엽 상엽 9-12·권1 제1엽 상엽 5-5·6-14 ; 『天台法華疏義續』 권1 제1엽 상엽 10-19·1-8·9-5·1-3·6-5·9-6·7-5·9-4·권6 말엽(간어) 하엽 5-10·권1 제1엽 상엽 9-10·10-12이다.

法華 玄義 序	居卷來法說所乘如而諸此
佛祖 歷代 通載	居卷來法說所乘如而諸此
天台 法華 疏義續	居卷來法說所乘如而諸此

<사진 1> 3종 판본의 자적

## 2.2 本國寺版의 數量과 版式

### 2.2.1 本國寺版의 數量

오늘날 각 기관의 소장목록과 해제, 연구문헌의 검색을 통하여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알려진 本國寺版은 6종으로 <표 1> 本國寺版 古活字本 目錄과 같다.<sup>6)</sup> 앞으로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

이중 본 연구를 위하여 실사한 판본은 3종이며, 서영을 참고한 것은 5종(4종은 실사 판본과 중복)이다.

6) 寬永 3년 9월에 『四教儀』 3권 3책을 간행하지만, 이는 목판본이다. 권말에 “寬永三<sup>丙寅</sup> 九月吉日 於洛陽本國寺之內開板”의 간기 1행이 있다.

<표 1> 本國寺版 古活字本 目錄

	書名	卷-冊數	版本事項 <sup>7)</sup>	비고
1	摩訶止觀私記	10-10	寬永3年(1626)本國寺版木活字印本	
2	法華玄義私記 <sup>8)</sup>	10-10	寬永3年(1626)本國寺版木活字印本	
3	法華玄義序 <sup>9)</sup>	1-1	文祿4年(1595)本國寺版木活字印本	(6)183-1331, (8)恭仁39, (9)p2
4	佛祖歷代通載	22-16	慶長17년(1612)本國寺版木活字印本	(1)WA7-218, <sup>10)</sup> (2)三Ab35, <sup>11)</sup> (3)310-134, (4)31-4-314, (7)特261-17(83), (8)恭仁56, (9)p83, (10)p270
5	天台法華疏義續	6-6	寬永3年(1626)本國寺版木活字印本	(5)
6	天台四教儀集解	3-3	文祿4年(1595)本國寺版木活字印本 <sup>12)</sup>	(1)WA7-18

비고: 판본의 소장처와 청구기호, 실사 판본에는 실선 밑줄, 서영 참고 판본에는 점선 밑줄.

(1) = (日本)國立國會圖書館, (2) = 東洋文庫, (3) = 內閣文庫, (4) = 大東急紀念文庫, (5) = 叡山文庫, (6) = 天理圖書館, (7) = 京都府立總合資料館, (8) = 杏雨書屋, (9) = 『弘文莊古活字版目錄』<sup>13)</sup>, (10) = 『弘文莊善本目錄』.

이들의 간행 연도별 수량은 文祿 4년에 2종, 慶長 17년에 1종, 寬永 3년에 3종이다.

이들의 크기는 1권에서 22권의 경우까지 대소형의 저술이 혼재하고 있다.

## 2.2.2 本國寺版의 版式 상 特徵

실사 판본 3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서영이나 문헌 자료는 분석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서술하지 않고 제각각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本國寺版 이해에 필요한 요소만 참고하였다.

### 2.2.2.1 表紙 題簽 書名

제침에 묵서한 경우가 1종(『天台四教儀集解』), 제침 없이 표지에 묵서한 경우가 2종이다. 『天台

7) 일본의 판본사항 저록 방식은 활자본일지라도 ‘모년모주체刊’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모년모주체刊行’의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는 판본의 생산 수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활자본의 경우는 ‘모년모주체모활자(모년鑄 또는 모년刻) 印本’으로 저록한다. 왜냐하면 刊本 또는 刻本은 목판본을 의미하며, 활자본은 활자의 제작 시기와 인출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8) 『法華玄義私記』는 『法華疏私記』·『法華止觀私記』와 함께 총서명 『法華三大部私記』에 포함된다. 각 10권, 목록 1권, 31책.

9) 일명 『法華私記緣記』.

10) 22권 20책.

11) 22권 36책.

12) 寬永년간본 설이 있다. 滋賀縣教育委員會事務局文化財保護課編, 『延曆寺木活字關係資料調查報告書(本編)』(大津: 滋賀縣教育委員, 2000), 4.

13) 이는 판매품목이므로 해당 판본의 현재 소재지는 바뀌었을 수 있다.

『四教儀集解』는 “天台四教義解 上”으로 묵서하여 “儀”로 쓰지 않았고, “集”을 누락하였다. 『佛祖歷代通載』는 “佛祖通載”로 약서명을 썼다. 『法華玄義序』는 표지 중앙에 본서명을 묵서하였다.

#### 2.2.2.2 匡廓 형식

광곽이 없는 경우가 2종이고(『天台法華疏義續』도 여기에 해당), 『佛祖歷代通載』는 사주단변이다.

#### 2.2.2.3 界線 유무

계선이 없는 경우가 2종이고(『天台法華疏義續』도 여기에 해당), 『佛祖歷代通載』만 있다.

#### 2.2.2.4 行數

한 엽에 5행이 1종으로 절첩장이고(『法華玄義序』), 10행이 2종으로 선장이다(『天台法華疏義續』도 여기에 해당).

#### 2.2.2.5 字數

17자(『法華玄義序』), 19자(『佛祖歷代通載』), 20자(『天台四教儀集解』) 등이 각각 1종씩이다 (『天台法華疏義續』는 20자).

#### 2.2.2.6 小註 형식

『佛祖歷代通載』는 소자 활자를 사용하여 쌍행으로 배열하였다. 자수는 본문의 대자와 같은 19자다.

#### 2.2.2.7 판구와 판심제 형식

『法華玄義序』는 판심이 없다. 따라서 판구·판심제·권차·장차 모두 없다. 나머지 2종은 백구다 (『天台法華疏義續』도 여기에 해당).

『佛祖歷代通載』는 판심제, 권차, 장차가 모두 본문과 같은 대자를 사용하였으되, 약서명인 “通載 一卷 一”로, 『天台四教儀集解』는 소자를 사용하여 약서명인 “集解上 一”로 되어 있다.

### 2.2.2.8 魚尾 형식

『法華玄義序』와 『天台四教儀集解』는 어미가 없다. 『佛祖歷代通載』는 상하내향삼엽화문어미를 취하고 있다(『天台法華疏義續』도 여기에 해당).

### 2.2.2.9 기타 특징

#### (1) 印版과 冊紙

『法華玄義序』는 모두 3장의 인판을 사용하여 인출하였다. 행간의 간극이 거의 균일하고 각 행 두문자의 높이도 비슷하여 인판의 구분이 쉽지 않다. 그러나 책지의 재단선과 묵색의 차이를 관찰하면 인판을 구분할 수 있다. 제1판은 22행, 제2판은 26행, 제3판은 35행이다. 제1판과 제2판은 각각 1장의 책지에 인출한 후 이어 붙였으나, 제3판은 2장의 책지를 이어 붙인 후 인출하여 제 1, 2장과 연결하였다.<sup>14)</sup> 책지는 장식을 위하여 운모 가루를 뿌려서 압착한 종이를 사용하였다. 종이 섬유간의 공극을 채우는 충진제를 많이 사용하여 책지가 두툼하다.

#### (2) 批語와 連刻 活字

『佛祖歷代通載』는 광곽 상단의 天頭에 干支와 批語가 대자 2자, 소자 3자 쌍행으로 있다.

『佛祖歷代通載』 권1 제1엽 상엽 제1행의 “吳郡步顯鄉刊” 6자와 제3엽 하엽 3행의 “宣授江淮福建等處釋教總統法性三藏弘教佛智大師<sup>沙羅巴</sup>譯” 26자는 연각 활자이다. 활자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길어서 연각 문자라고 할 수도 있겠다.

#### (3) 印行處와 印行者

『佛祖歷代通載』 권22의 권말제 다음에 後序가 있다. 이 후서의 제74엽 하엽 제7~9행에 다음과 같은 인행처와 인행자가 있다.

嘉興城東紫場灣  
雲門菴印行  
徒弟 子夔 可斯 董工

14) 책지를 붙여서 인출하는 현상은 상황에 따라서 일본 판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도 임진왜란 직후의 판본에서 책지를 붙여서 인출한 현상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조선 판본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당시 전란의 폐해로 인하여 물자의 부족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일본 판본 중에는 인판이 구분되는 곳마다 1장의 책지에 걸쳐있고, 책지를 붙인 곳마다 1장의 인판을 인출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1책 전체에 걸쳐서 나타난다. 즉 1책 분의 책지를 모두 붙인 후 인출한 것이다. 이는 일본 판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法華玄義序』는 이 경우가 아니다.

### 3. 本國寺版 古活字의 製作技術

本國寺版의 인쇄기술에 대하여 실사한 판본을 바탕으로, 활자 인쇄의 3요소인 활자의 제작, 조판 = 인판의 제작, 인출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기술 수준을 분석한 후, 이를 종합하여 전반적인 인쇄기술을 평가하였다.

#### 3.1 材質과 製作 方法

##### 3.1.1 字樣과 字跡의 일치 여부<sup>15)</sup>

동일한 문자의 자양이 약간 차이나고 있지만, 세련도는 유지하고 있다(『通載』).  
자양이 제법 차이나면서 세련도는 갖추고 있으되, 약간 떨어진다(『法華玄義序』·『集解』).

##### 3.1.2 刀刻의 痕迹

도각의 흔적은 필획의 윤곽에서는 쉽게 보이고, 필획이 교차하는 곳에서도 간혹 보인다(<사진 2> 참조)(『通載』).

필획이 교차하는 곳에서는 드물게 보이지만, 윤곽에서는 분명하여 쉽게 보인다(『法華玄義序』·『集解』).

##### 3.1.3 木理의 有無

목리는 진한 목색으로 인하여 쉽지는 않지만, 간혹 보이기도 하고(<사진 2> 참조)(『通載』), 목색이 다소 연한 부분에서 확대경을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法華玄義序』·『集解』).

『法華玄義序』 제1엽 1-1, 『佛祖歷代通載』 권1 제1엽 상엽 4-19·8-19·9-5, 권3 제1엽 상엽 8-5·9-천두1右, 『天台四教儀集解』 권상 제1엽 상엽 7-11·8-11	『佛祖歷代通載』 권1 제1엽 상엽 1-3·1-6, 권3 제1엽 상엽 1-5
法生神騫世世以何	歷載通

<사진 2> 도각과 목리 현상

15) 기술 요소를 예시한 판본은 판심제를 사용하였다. 이하 같다.

## 3.2 熟練度

### 3.2.1 筆書體의 筆意 表現

자형 및 필획의 윤곽과 필획 굵기의 균정도를 살피면, 자양은 비록 다르지만 필서체의 필의를 잘 살리고 있다. 신조 활자의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으면서 세련도를 유지하고 있다(『通載』).

필서체의 필의를 표현하고 있지만, 동일 문자의 자양이 유사하기도 다소 차이 나기도 하여 세련도는 약간 떨어진다(『法華玄義序』). 드물게 부조화 문자가 보인다(『集解』).

### 3.2.2 文字의 美感

각 문자의 서체 균형을 유지하고 있고, 필획은 균정하다. 강건한 해서체의 미감을 충분히 살리고 있는 매우 고명한 조각술이다(『通載』).

서체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필획은 강건한 해서체의 미감을 살리고 있지만, “如·方” 등의 문자에서 도각의 흔적이 보일만큼 약간 투박하여 매끈하지 않은 분위기가 꾸준히 이어진다. 화려하거나 기교를 부린 세련미는 아니지만, 자신만의 해서체 미감을 유지하고 있는 조각술이다(『集解』).

서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간혹 필획의 윤곽에 다듬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다소 균정하지 못하다. 힘 있는 강건한 해서체를 표현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다소 다듬어지지 않은 서툰 모습이다. 지양도 제법 차이되면서 해서체의 미감을 표현하기에는 세련미가 약간 떨어진다(『法華玄義序』).

## 3.3 기타: 例外的인 活字

간혹 서체도 도각술도 달라서 보자로 보이는 문자가 있다(『通載』).

## 3.4 綜合 評價

활자 제작기술 수준이 필서체의 자형을 표현하고는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미감을 살리고 있는 세련된 수준이다. 다만 판본에 따라서 기술 상 편차가 큰 경우가 있다(『法華玄義序』).

상중급(『通載』), 상하급(『集解』), 중중급이 각각 1종씩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상하급이다.

## 4. 本國寺版 古活字의 組版技術

### 4.1 字跡의 從行과 橫列

#### 4.1.1 從行

한눈에 보아도 기술 수준을 짐작할 수 있을 만큼 매우 가지런하다(『通載』). 대체로 가지런한 편인데, 미세한 치우침이 보인다(『法華玄義序』). 이로 인하여 굵은 행이 간혹 보인다(『集解』).

#### 4.1.2 橫列

한눈에 보아도 기술 수준을 짐작할 수 있을 만큼 매우 가지런하다(『通載』). 대체로 고르게 맞추고 있다. 간혹 약간의 굴곡이 있어서 완전히 정연하게 보이지는 않는다(『集解』). 간기 부분은 크기가 다른 “<sup>乙</sup>未”로 인하여 출입이 커 보인다(<사진 3> 참조)(『法華玄義序』).

### 4.2 字跡의 安置 角度

빠들어진 문자가 거의 없다. 소자도 반듯하다(『通載』). 대체로 바른 편이어서, 빠들어진 정도는 약간의 경우가 간혹 보인다. 두드러진 경우는 1~2개 정도인데, 이 경우도 심한 편은 아니다(<사진 3> 참조)(『法華玄義序』·『集解』).

### 4.3 文字面과 印出面의 水平

#### 4.3.1 文字面의 水平

3종의 판본 모두 일부 필획이 인출되지 않은 경우가 없을 정도로 문자면의 수평을 잘 유지하고 있다. 다만 연하게 인출된 경우가 드물게 보일 뿐이다(<사진 3> 참조)(『法華玄義序』).

#### 4.3.2 印出面의 水平

묵색의 농담이 진하거나 연한 문자가 드물게 보이며, 계선과 광곽이 간혹 부분적으로 인출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특히 상변 광곽은 천두에 문자가 있는 경우에 인출되지 않은 곳이 간혹 보인다(「通載」).

묵색이 비교적 고른 편이다. 다만 다소 진하거나 연한 문자가 보이며, 엽에 따라서 비교적 균일하기도 편차가 보이기도 하여 약간의 농담 차이를 보이고 있다(「集解」).

묵색의 농담은 간혹 다소 진한 문자가 섞여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보이지만, 이것 역시 심한 편은 아니다. 육면체의 방정한 활자로 보인다(<사진 3> 참조)(「法華玄義序」).

#### 4.4 印版 匡廓의 꼭지점

광곽이 있는 경우는 「佛祖歷代通載」 뿐이다. 광곽과 계선 모두 조립하였는데, 네 꼭지점의 결구는 0~1mm 정도로 매우 작다. 목판본처럼 밀착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조선의 활자본과 견줄 수 있을 만큼 매우 우수한 수준이다(<사진 3> 참조).

판면 상에는 광곽이 없지만, 인판 상에는 활자를 조이기 위한 광곽 역할을 하는 버팀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버팀목은 활자보다 높이가 낮아서 인출되지 않지만, 실수로 나타난 잡목의 흔적을 추적하면 짐작이 가능하다. 本國寺판은 광곽 상·우변을 고정하기 위하여 광곽 상·우방에 24~27mm와 8mm 정도 폭의 것을(「集解」), 하변을 고정하기 위하여 광곽 하방에 22mm 정도 폭의 것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法華玄義序」).

「法華玄義序」 제16엽 제4행~제17엽 제3행-4~8	「法華玄義序」 제5엽 5-2~6	「法華玄義序」 제2엽 4-5~9, 제4엽 2-4~8	「法華玄義序」 제4엽 1~3-9~13	「佛祖歷代通載」 권3 제1엽 상엽 1~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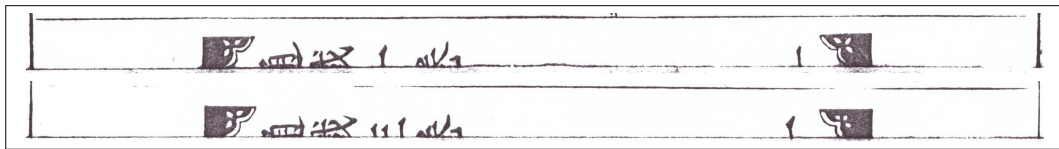
<사진 3> 자적의 횡렬, 안치 각도, 문자면과 인출면의 수평, 광곽 꼭지점 등 현상

## 4.5 기타

### 4.5.1 界線 격자

어미와 판심 계선의 간극이 4mm 정도로 크게 벌어져 있다(<사진 4> 참조). 간극용 격자를 사용하였을 것이다(『通載』).

기본적으로 판본 상에 계선이 인출되지 않아서 분석이 쉽지 않지만, 잠묵 현상 등을 분석하면 계선과 계선 사이의 활자를 심을 수 있는 행 폭은 12mm이다(『法華玄義序』).



<사진 4> 「佛祖歷代通載」 권1과 권3의 제1엽 상엽 판심

### 4.5.2 本文 字跡의 顛倒와 脫落

『天台四教儀集解』의 권두제가 “天台四教集解卷上”으로 되어 있어서 “儀”가 탈락되었다. 기타 판본에서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 4.5.3 校正의 失手

『佛祖歷代通載』 판심의 권차는 “一卷, 三卷”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를 권두제의 권차 “卷第一, 卷第三” 또는 오늘날의 표현 방식과 비교하면 교정의 실수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가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점에서 이미 인식하고 있거나 당시의 관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sup>16)</sup>

## 4.6 綜合 評價

조판기술 수준이 활자의 제작이나 인출기술보다 우수하다.

상중급이 1종(『通載』), 기타는 상하급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상하급이다.

16) 후인이 朱筆로 교정한 문자를 보면, 오히려 오자가 적지 않아서 애석할 따름이다.

## 5. 本國寺版 古活字의 印出技術

### 5.1 墨色의 濃淡

#### 5.1.1 全體의 墨色

3종 판본 모두가 전반적으로 묵색을 진하게 사용한 편이다.

#### 5.1.2 葉 간의 濃淡差

엽에 따라 간혹 연하거나 진한 엽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고른 편이다(『通載』).

대체로 진한 묵색에 간혹 연한 엽이 있어서 차이는 보이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集解』).

3장의 인판 중, 제1판은 진하고, 제2판은 진한 편이고, 제3판은 다소 연한 편으로 농담 차이가 보인다(『法華玄義序』).

### 5.2 墨汁의 번짐과 字跡의 깨짐

#### 5.2.1 墨汁의 번짐

번짐 현상은 없으나, 번진 듯이 진한 문자가 있다. 즉 권13 제33엽의 6개, 권17 제17엽의 7개, 권22 제22엽의 10개, 제36엽의 21개 정도이다(『通載』).

번짐 현상은 없으나, 몇몇 문자가 힘껏 인출되면서 필획 간의 묵즙이 번진 경우가 보인다. 묵색이 다소 연한 편인 제3판에서도 번진 문자가 있는 점에서 인출 시 밀대로 힘껏 밀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사진 5> 참조)(『法華玄義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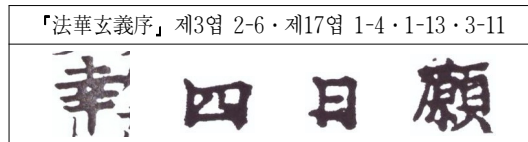
엽 전체가 번진 경우는 없지만, 간혹 부분적으로 번진 엽이 보인다. 필획 간의 묵즙이 번진 경우도 보인다. 착묵이 과하여 묵정이 되었거나 진한 문자도 보인다. 판면의 묵색이 아주 우수하게 고른 경우와 부분적으로 번진 엽이 혼재하여 기술적 편차가 크다(『集解』).

#### 5.2.2 墨汁의 솔림

솔림 현상이 보이지 않는다(『通載』).

필획 간 묵즙이 반영된 문자가 곳곳에 있어서 묵색이 일부 솔린 현상이 보인다(<사진 5> 참조)(『法華玄義序』).

착묵이 과하여 진하거나 필획 간의 묵즙이 번진 문자는 필획 측면의 묵즙이 동시에 반영되면서 쓸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集解』).



<사진 5> 묵즙의 번짐과 쓸림 현상

### 5.2.3 字跡의 깨짐

착묵에 큰 어려움이 없는 목활자에 목색을 진하게 쓴 결과 자적이 깨진 경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 5.3 雜痕과 雜墨

잡묵 현상이 없기도 하고(『通載』), 미량의 경우가 약간 보이기도 한다(『法華玄義序』·『集解』).

### 5.4 二重 印出

실사 판본에서 이중 인출 현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 5.5 印出의 方向과 強度

인출의 방향과 강도를 살피기 위하여는 책지의 문자가 반영되어 있는 인출면보다 배면을 살피면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인출의 방향과 강도를 짐작할 수 있는 현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通載』).

필획 측면의 묵즙이 반영된 쓸림 문자에서 인출을 위한 밑대의 밀림이 강하여 약간의 요철 현상이 보인다(『法華玄義序』·『集解』).

### 5.6 着墨의 均整度

전반적으로 착묵 상태가 균일하여 안정되어 있다(『通載』).

진한 목색에 필획의 측면 반영, 번짐과 쓸림 등 현상이 다소 보이는 안정되지 못한 모습이다. 조각술과 조판술을 상쇄하고 있다(『法華玄義序』·『集解』).

## 5.7 綜合 評價

전반적으로 목즙을 사용하는 인출기술이 판본에 따라 편차가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미숙하여 활자의 제작기술이나 조판기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중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1종(『通載』), 기타는 중상급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간신히 상하급이다.

## 6. 本國寺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전반적으로 우수한 기술 수준을 보이는 판본(『通載』)이 있는 반면에, 인출기술이 우수한 활자 제작과 조판기술을 상쇄하기도 하고(『集解』), 활자 제작 기술과 인출기술이 우수한 조판기술을 상쇄하는 경우도 있다(『法華玄義序』) 이는 간행 활동이 꾸준히 이어지지 않고 17년과 14년의 시차를 두면서 이루어진 결과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상중급(『通載』), 상하급(『集解』), 중상급(『法華玄義序』)이 혼재하고 있다. 전반적인 本國寺版의 활자 인쇄 기술 수준은 상하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

## 7. 結 論

이상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本國寺版 古活字本이란 京都 소재 本國寺에서 日保 등이 文祿 4년(1595)부터 寬永 3년(1626)까지의 32년간 목활자를 이용하여 인출한 6종의 판본을 지칭한다.

판식 상의 특징은 광곽과 계선이 없는 경우가 많다. 절첩장의 경우는 매엽 5행, 선장은 10행인데, 자수는 17~20자, 小註가 있는 경우에는 雙行이다. 판심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에는 백구, 상하내향삼엽화문어미, 약서명 판심제를 사용하였다.

(2) 活字의 재질은 자양이 일치하지 않고 도각의 흔적과 목리가 보여서 목활자임을 알 수 있다. 製作技術은 필서체의 필의를 표현하고 있으면서, 문자의 미감도 잘 살리고 있다. 기술 수준은 상하급.

(3) 組版技術은 字跡의 行列이 대체로 정연하다. 뺄어진 문자는 드물고, 墨色 濃淡은 균일하다. 광곽이 있는 경우는 꼭지점의 결구가 0~1mm로 매우 작다. 교정도 충실한 편이다. 기술 수준은 상하급.

(4) 印出技術은 전체적으로 목색을 진하게 사용하였다. 목색은 판본에 따라 번짐과 쏠림 등에서 편차가 있다. 기술 수준은 간신히 상하급.

(5) 전반적인 印刷技術 수준을 종합하면 상하급을 유지하고 있다.

## <참고문헌>

### 1. 목록·해제·도록류

- 京都府立総合資料館圖書部編. 『京都府立総合資料館貴重書目録』. 京都: 京都府立総合資料館, 1971.
- (日本)國立國會圖書館圖書部編. 『國立國會圖書館所藏古活字版圖錄』. 東京: 汲古書院, 1990.
- (日本)國立國會圖書館圖書部編. 『國立國會圖書館漢籍目録』. 東京: 國立國會圖書館, 1987.
- (日本)國立國會圖書館圖書部編. 『新編帝國圖書館和古書目録』. 東京: 國立國會圖書館.
- 內閣文庫編. 『改訂內閣文庫漢籍分類目録』. 東京: 國立公文書館內閣文庫, 1971.
- 內閣文庫編. 『內閣文庫國書分類目録(上·下)』. 東京: 國立公文書館內閣文庫, 1974.
- 內閣文庫編. 『內閣文庫國書分類目録』. 東京: 國立公文書館內閣文庫, 1974.
- 內閣文庫編. 『內閣文庫漢籍分類目録』. 東京: 國立公文書館內閣文庫, 1971.
- 大東急紀念文庫編修. 『大東急紀念文庫貴重書解題』. 東京: 大東急紀念文庫.
- 大東急紀念文庫編修. 『大東急紀念文庫書目』. 東京: 大東急紀念文庫, 1955.
- 大東急紀念文庫編修. 『大東急紀念文庫書目第二』. 東京: 大東急紀念文庫, 1978.
- 東洋文庫日本研究委員會編. 『岩崎文庫貴重書誌解題』. 東京: 東洋文庫, 2000.
- 東洋文庫編. 『東洋文庫所藏漢籍分類目録: 經部(東洋文庫之部)·史部·子部』. 東京: 東洋文庫, 1978, 1986, 1993.
- 東洋文庫編. 『岩崎文庫和漢書目録』. 東京: 東洋文庫, 1934.
- 東洋文庫編. 『漢籍分類目録: 集部(東洋文庫之部)』. 東京: 東洋文庫, 1967.
- 東洋學文獻センター連絡協議會編. 『東洋文庫所藏漢籍分類目録』. 東京: 東洋文庫, 1967.
- 武田科學振興財團編. 『杏雨書屋藏書目録』. 大阪: 武田科學振興財團, 1982.
- 反町茂雄編. 『弘文莊古活字版目録』. 東京: 弘文莊, 1972.
- 反町茂雄編. 『弘文莊善本目録』. 東京: 弘文莊, 1977.
- 天理大學附屬天理圖書館編. 『天理圖書館稀書目録: 和漢書之部第一二三四』. 天理: 天理大學出版部, 1940, 1951, 1960, 1998.
- 天理圖書館編. 『古活字本目録: 附年間主要增加和漢書目』. 天理: 天理大學出版部, 1961.
- 天理圖書館編. 『善本圖録』. 天理: 天理大學出版部, 1997.
- 天理圖書館編. 『天理圖書館古義堂文庫目録』. 天理: 天理大學出版部, 1956.
- 杏雨書屋編. “杏雨書屋所藏古活字本目録.” 『杏雨』第4號(2001. 4).
- 杏雨書屋編. 『新修恭仁山莊善本書影』. 大阪: 武田科學振興財團, 1985.
- 杏雨書屋編. 『杏雨書屋圖録』. 大阪: 武田科學振興財團, 1998.

2. 저술·논문류

滋賀縣教育委員會事務局文化財保護課. 『延曆寺木活字關係資料調查報告書(本編)』. 大津: 滋賀縣教育委員, 2000.

長澤規矩也. 『圖解和漢印刷史《解說篇》』. 東京: 汲古書院, 1976.

井上宗雄. 『日本古典籍書誌學辭典』. 東京: 岩波書店, 1999.

曹炯鎭. “古活字 印刷技術의 評價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25(2003. 6), 369-406.

川瀨一馬. 『增補古活字版之研究』. Tokyo: The Antiquarian Booksellers Association of Japan, 1967.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o, Hyung-Jin. 2003. “A Study on Appraisal of Early Typography.”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25: 369-406.